

베트남 산업재해의 현황과 문제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베트남

박재명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교 노동법·사회보장법 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 베트남은 외국투자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근로지에서 당하는 사고를 비롯한 직업병 등을 포함한다.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해당 기능 인력의 손실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사회보험료 및 사회적 비용의 상승 그리고 국가의 노동관리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가져오며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노사 간 건전한 노동관계는 불가능하므로 이들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과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려 노력하는 중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베트남의 최근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주요 내용

산업재해 현황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Bộ Lao động Thương binh và Xã hội)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

<표 1> 2017년 산업재해 현황

구분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미체결	합계
산업재해 발생	7,749건(84.5%)	1,207건(15.5%)	8,956건
산업재해 근로자	7,907명(84%)	1,266명(16%)	9,173명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648건(61.4%)	250건(38.6%)	898건
2인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70건(55.8%)	31건(44.2%)	101건
산업재해 사망자	666명(60.7%)	262명(39.3%)	928명
산업재해 중증 이상 피해자	1,681명(86.1%)	234명(13.9%)	1,915명
여성 근로자의 산업재해	2,317명(81.2%)	410명(18.8%)	2,727명

르면(표 1 참조),¹⁾ 2017년 한 해 베트남에서는 총 8,95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9,173명의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근로계약 체결여부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률을 조사한 것인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15.5%인 것에 비해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율은 38.6%, 2인 이상의 산업재해율은 44.2%, 산업재해 사망자율은 39.3%로 높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보다 사망과 같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역시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²⁾ 이러한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보호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사회보험법상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보상을 받더라도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분쟁예방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위해 반드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산업재해는 <표 2>와 같이 전년대비 2.1% 증가, 산업재해 근로자 역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는 전년대비 1.1% 감소, 사망자 역시 6.3% 감소하였고 2인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중증 피해 근로자의 수도 다소 감소한 것으

1) 2017년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 발표(No.908/TB-LDTBXH, 2018년 3월 8일). 본고의 내용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2) Luru Binh Nhưõng và 2người(2015), p.50.

<표 2> 2016~2017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산업재해 현황 비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산업재해 발생	7,588건	7,749건	+161(+2.1%)
산업재해 근로자	7,806명	7,907명	+101(+1.3%)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655건	648건	-7(-1.1%)
산업재해 사망자	711명	666명	-45(-6.3%)
산업재해 중증 이상 피해자	1,855명	1,681명	-174(-9.4%)
여성 근로자의 산업재해	2,291명	2,317명	+26(+1.1%)
2인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95건	70건	-25(-26.3%)

<표 3> 2017년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

순위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 (명)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건)	산업재해 발생 (건)	산업재해 근로자 (명)	산업재해 중증 이상 피해자 (명)
1	호치민시(THCM)	123	122	1,517	1,535	306
2	하노이시(Hà Nội)	66	66	385	387	64
3	빈즈영성(Bình Dương)	57	55	436	451	50
4	꽝닌성(Quảng Ninh)	45	43	570	598	338
5	푸옌성(Phủ Yên)	40	36	83	74	17
6	박닌성(Bắc Ninh)	38	38	145	145	10
7	하이즈영성(Hải Dương)	29	29	287	289	121
8	동나이성(Đồng Nai)	29	28	1,424	1,434	106
9	옌바이성(Yên Bái)	27	27	73	74	47
10	타잉화성(Thanh Hóa)	25	23	34	39	14

주 : 순위는 산업재해 사망자 기준.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규모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58개의 성(Tỉnh)과 5개의 중앙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로 구성, 총 6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 3>에 나타난 10개 지역 단위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479명으로 베트남의 1/5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에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과반인 51.6%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은 일반적으로 타 지역보다 경제나 산업 등이 발전했거나 급속히 발전 중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내 도시를 GDP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위는 호치민시(TP. Hồ Chí Minh), 2위 하노이시(Hà Nội), 3위 다낭시(Đà Nẵng), 4위 빈즈엉성(Bình Dương), 5위 꽝닌성(Quảng Ninh), 6위 바지아-붕따우성(Bà Rịa-Vũng Tàu), 7위 동나이성(Đồng Nai), 8위 하이퐁시(Hải Phòng)로 이들 도시 중 여행업이 중심인 다낭시와 바지아-붕따우성 그리고 항구를 낀 교통의 요충지인 하이퐁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표 3>에 포함되어 있으며,³⁾ 특히 이들 지역에는 산업공단이 많이 위치하여 있고 다수의 외국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특징이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역시 <표 3>의 주요 지역들인 호치민시와 하노이시, 빈즈엉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표 4>에서 보듯 지역별로는 2017년도 기준 전년대비 10지역 가운데 6지역에서는 증가, 4지역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발생건수는 106

<표 4> 2016~2017년 지역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산업재해 비교

순위	지역	산업재해 발생(건)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건)			산업재해 사망자(명)		
		2016년	2017년	증감	2016년	2017년	증감	2016년	2017년	증감
1	호치민시(THCM)	1,721	1,492	-229	92	101	+9	98	102	+4
2	하노이시(Hà Nội)	225	273	+48	74	58	-16	75	58	-17
3	빈즈엉성(Bình Dương)	534	436	-98	61	55	-6	62	57	-5
4	동나이성(Đồng Nai)	1,283	1,418	+135	33	55	+22	33	29	-4
5	꽝닌성(Quảng Ninh)	563	552	-11	30	25	-5	34	26	-8
6	박닌성(Bắc Ninh)	67	94	+27	6	21	+15	16	26	+10
7	타잉화성(Thanh Hóa)	44	33	-11	29	23	-6	47	25	-22
8	하이즈엉성(Hải Dương)	135	245	+110	16	23	+7	16	23	+7
9	롱안성(Long An)	275	311	+36	9	15	+6	10	15	+5
10	타잉웬성(Thái Nguyên)	51	150	+99	8	15	+7	10	15	+5

주 : 순위는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기준.

3) 2017년 8월 기준 경제별 상위 8개 도시, 출처: <https://tuyencongnhan.vn/tin-tuc/top-8-tinh-thanh-giau-nhat-viet-nam-hien-nay>

건이 증가해 이들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해 사망자는 해당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2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대규모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분류

2017년 산업재해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가운데 137건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의 설립형태에 따른 근로자 사망사고 비율은 주식회사 40%(사망률 40.9%), 유한책임회사 29.23%(29.19%), 국영회사 17.69%(17.5%), 개인회사 6.92%(6.6%)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20.8%(사망률 19.7%), 제조업 9.2%(8.8%), 기계·금속업 6.9%(8.02%), 농림업 3.8%(3.6%), 서비스업 1.53%(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의 유형에 따른 사망사고 비율은 추락 27.7%(사망률 30.7%), 감전 13.1%(12.5%), 교통사고 13.1%(12.4%), 구조물 파손 및 붕괴 12.4%(12.4%), 기계·시설물에 의한 사고(끼임·감김·치임) 6.2%(5.8%), 낙하(강하)물로 인한 사고 4.6%(4.4%) 순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사용자책임이 45.41%를 차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마련해야 할 근로 공정상 안전체계의 미확보 14.6%,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안전 교육 및 훈련의 부족 12.31%, 기계설비의 안전성 결함 10%, 근로환경 6.2%, 작업상 안전보호구 미흡 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책임의 비율은 20%로 조사되었는데 안전규정 위반이 16.9%, 개인안전 장구 미착용이 3.1%로 나타났다. 나머지 34.59%는 객관적으로 그 원인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피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에 의한 사고가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7년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와 장례비, 보상금(상해, 사망, 유족 보상금 등) 등으로 인한 손실은 15,410억 베트남동으로 조사되었고 재산손실액은 48억 베트남동,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한 날은 총 136,918일로 집계되었다.

특수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 경찰, 과학기술, 의료분야에 대한 별도의 산업재해 통계 중 2017년 산업재해 결과는 국방부만이 그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국방부 산하기관에서는 총

62건의 근로자 산업재해(폭발사고 등)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25명 사망, 34명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사건 중 11건은 기계나 설비로 인한 사고(끼임·감김·치임), 8건은 추락, 5건은 감전, 4건은 구조물 붕괴나 낙석, 4건은 추락물, 3건은 익사, 기타 분류는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산업재해의 현재

현재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건설업의 호황과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구조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률을 대폭 감소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아직 저숙련 근로자의 비율과 이직률이 높고 각 사업장의 시설이나 기계, 장비의 부실과 노후화 그리고 근로자 개인 안전장비의 미흡, 안전 교육의 부재까지 근로환경의 안전 확보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⁴⁾ 물론 몇몇 규모가 큰 외국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최첨단 장비를 구비하여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노동 중심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안전과 위생에도 차츰 양극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앞서 <표 1>과 같이 근로계약을 미체결한 근로자의 다수는 소위 말하는 일용직, 용역, 초단기 근로, 하청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산업재해 발생비율에 비해 사망률 등이 높아 근로안전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러한 지표는 베트남 역시 노동시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은 각각의 노동관계 주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베트남 노동보훈부 산하 노동안전관리국(Cục An toàn lao động, Bộ LĐ-TB&XH)에 따르면, 산업안전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기업은 무려 2,200여 개로 기업들의 노동안전법규 준수 조사(연 단위) 비율이 0.22%에 그쳐 산업재해 발생을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⁵⁾ 또한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률이 거의 과반에 이르고 있어 사용자

4) 일간지 라오동투도(laodongthudo), 2018년 5월 17일자, <http://laodongthudo.vn/khai-bao-tai-nan-lao-dong-van-chua-duoc-thuc-hien-nghiem-tuc-73543.html>

5) 일간지 바오전신(baodansinh), 2018년 6월 30일자, <http://baodansinh.vn/nang-cao-nhan->

의 근로환경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며 근로자의 노동안전 의식 미흡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위생이 담보되지 못한 근로환경은 많은 종류의 직업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베트남 보건당국(Bộ Y tế)은 34개의 직업병 중 무려 30여 개의 질환(청각장애, 기관지 및 폐 질환, 진폐증, 니코틴 중독 등)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직업병에 의한 근로자 피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혀 이에 관한 대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기업이 노동안전과 이에 관한 법 규정을 준수하는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나 직업병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통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집계하여 이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며 노동보훈사회부를 비롯한 총노동조합연맹과 보건당국 등 각 지역의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해 산업재해를 줄여갈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지역 근로감독기관들이 관련 통계를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작성하는 비율이 15.4%에 불과해 적시에 관련 통계를 확인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통계를 통해 자세한 사고유형이나 원인, 직업병 사망자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자료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어 이전의 대책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맺음말

요즈음 베트남에서도 산업재해의 인정 문제와 근로자 보상, 근로관계 유지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 따라 사용자가 관련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의 근로감독권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

thuc-cong-tac-truyen-thong-ve-atvsld-d75890.html

면 근로자들의 산발적인 파업과 태업, 근로거부 등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노동관계가 악화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고 노동력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며 사용자의 근로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트남 역시 산업재해에 있어 당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베트남은 국가의 산업안전관리 감독 및 역량 강화를 꾀하고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노동인권을 되돌아보고 특히 산업재해의 부담까지 가중하여 떠안는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보살펴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2017년 산업재해현황 보고서 발표자료(No.908/TB-LĐTBXH)」, 2018년 3월 8일.
- Lưu Bình Nhưỡng và 2 người(2015),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lao động」, Nhà xuất bản lao động.